

기록으로 보는 산림청

산림청

1. 산림청 역사

산림청 개청

해방 후 우리나라의 산림 보호와 자원 육성에 대한 업무는 1948년 11월 농림부에 산림국(山林局)이 설치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산림의 보호·육성, 국토보전 등에 대한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1966년 12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1967년 1월 1일 농림부 소속의 외청인 '산림청'(山林廳)으로 발족하였다. 발족 당시 산림청의 기구는 1실 3국 10과였다. 이후 1973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내무부 소속으로 옮겼다가, 1986년 다시 농림수산부 산하로 이관되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증식 및 산림산업의 개발, 산지관리와 국유림 관리, 산림복지·문화의 보급, 산림 보호와 산림생태계 보전, 해외산림 자원 개발, 산림분야 연구개발 등을 관장하고 있다. 2018년 9월 현재 조직은 2관 3국 1단 24과 3팀(본청)이며, 11개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은 산림교육원, 산림항공본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방산림청(북부·동부·남부·중부·서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있다.



◀ 1967. 1. 9. 개청식
- 서울 삼영동 빌딩에서 열린 김영진 초대 청장이 참석한 현판식 모습



◀ 정부대전청사 입주식 모습(1998년)

산림청 상징 변천



(1967~1985)



(1985~1999)



(1999~2015)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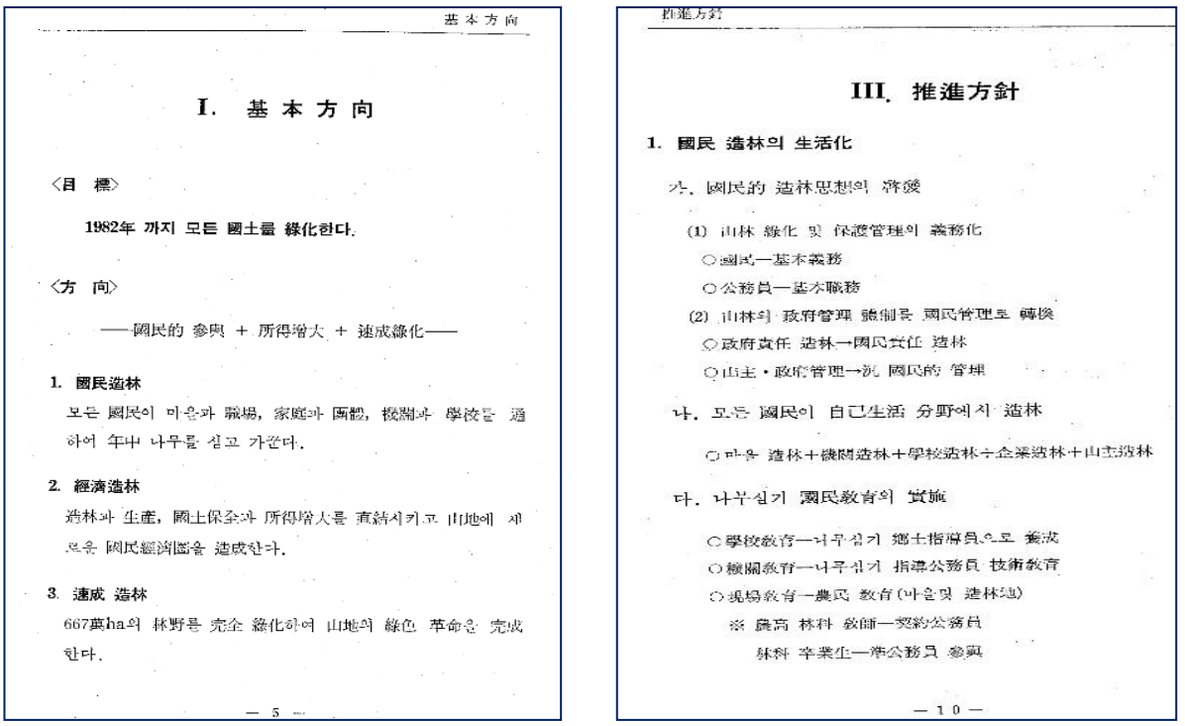
산림정책의 변화

1차 치산녹화계획(1973)

• 주요내용

- 1차 치산녹화계획의 계획기간인 '1982년까지 모든 국토를 녹화한다'를 목표로 전국민이 나무를 심고 가꾸어 전국토를 녹화하는 운동을 벌였다. 실제 목표로 했던 시기보다 빠르게 1978년에 108만ha의 녹화를 달성하여 전국토의 산림녹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시기에는 특히 속성 녹화를 위해 이태리포플러, 은수원사시나무 등 속성수와 농가 소득을 위해 밤나무, 감나무 등의 유실수 등 10대 조림수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조림하였으며, 숙원사업이던 화전정리사업이 마무리되었다.



基 本 方 向

I. 基 本 方 向

〈目 標〉

1982年 까지 모든 國土를 綠化한다.

〈方 向〉

——國民的 參與 + 所得增大 + 速成綠化——

1. 國民造林

모든 國民이 마을과 職場, 家庭과 團體, 機關과 學校를 通하여 年中 나무를 심고 가꾼다.

2. 經濟造林

造林과 生産, 國土保全과 所得增大를 直結시키고 山地에 새로운 國民經濟圈을 造成한다.

3. 速成 造林

667萬ha의 林野를 完全 綠化하여 山地의 綠色 革命을 完成한다.

— 5 —

推進方針

III. 推進方針

1. 國民 造林의 生活化

가. 國民的 造林思想의 涵養

(1) 山林 綠化 및 保護管理의 義務化

○國民—基本義務

○公務員—基本職務

(2) 山林의 政府管理 體制를 國民管理로 轉換

○政府責任 造林—國民責任 造林

○山主·政府管理—脫 國民的 管理

나. 모든 國民이 自己生活 分野에서 造林

○마을 造林+機關造林+學校造林+企業造林+山主造林

다. 나무심기 國民敎育의 實施

○學校敎育—나무심기 鄕土指導員으로 養成

○機關敎育—나무심기 指導公務員 技術敎育

○現場敎育—農民 敎育(마을별 造林組)

※ 農高 林科 敎師—契約公務員

林科 卒業生—準公務員 參與

— 10 —

▲ 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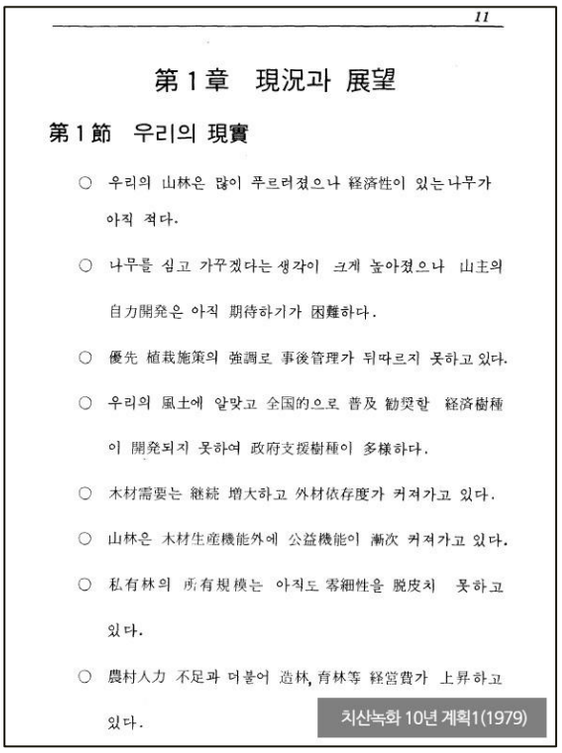
▲ 조림 후 모습(1974년, 강원도 양양군)

2차 치산녹화계획(1979)

• 주요내용

- 1차 치산녹화계획이 황폐화된 국토의 녹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2차 계획은 용재림을 위주로 하는 목재 생산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1차에서 미진했던 사방사업에서 성과를 냈다. 이 시기에 산지사방 36,072ha, 야계사방 223㎞, 해안사방 327ha가 달성되었다.

또한 경제 조림의 확대와 대단지화를 목표로 대단지 조림 사업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해 산지이용구분조사를 시행하고 정밀산림토양도 등을 제작·보급하기도 했다.



11

第1章 現況과 展望

第1節 우리의 現實

○ 우리의 山林은 많이 푸르러졌으나 經濟性이 있는 나무가 아직 적다.

○ 나무를 심고 가꾸겠다는 생각이 크게 높아졌으나 山主의 自力開発은 아직 期待하기가 困難하다.

○ 優先 植栽施策의 強調로 事後管理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 우리의 風土에 알맞고 全国的으로 普及 勧奨할 經済樹種이 開発되지 못하여 政府支援樹種이 多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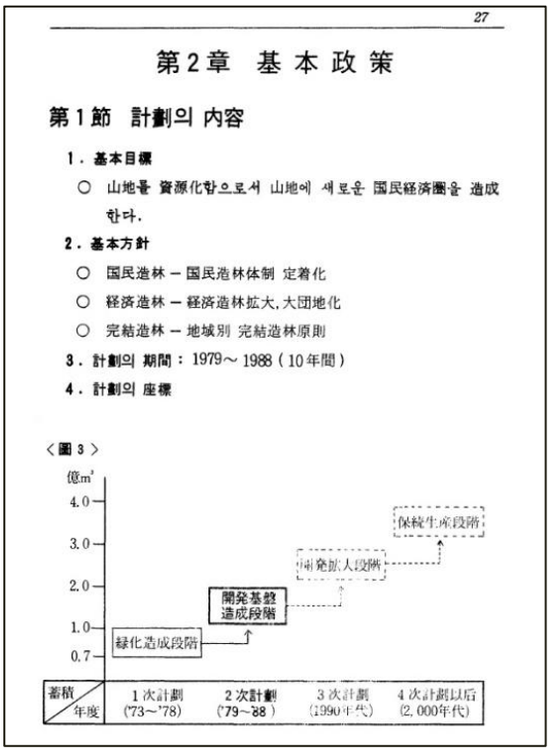
○ 木材需要는 継続 増大하고 外材依存度가 커져가고 있다.

○ 山林은 木材生産機能外에 公益機能이 漸次 커져가고 있다.

○ 私有林의 所有規模는 아직도 零細性을 脱皮치 못하고 있다.

○ 農村人力 不足과 더불어 造林, 育林等 経営費가 上昇하고 있다.

치산녹화 10년 계획1(1979)



27

第2章 基本政策

第1節 計劃의 内容

1. 基本目標
   ○ 山地를 資源化함으로서 山地에 새로운 国民経済圏을 造成한다.
2. 基本方針
   ○ 国民造林 – 国民造林体制 定着化
   ○ 経済造林 – 経済造林拡大, 大団地化
   ○ 完結造林 – 地域別 完結造林原則
3. 計劃의 期間 : 1979~ 1988 (10年間)
4. 計劃의 座標

<圖 3>

▲ 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 중



▲ 대관령특수조림지(198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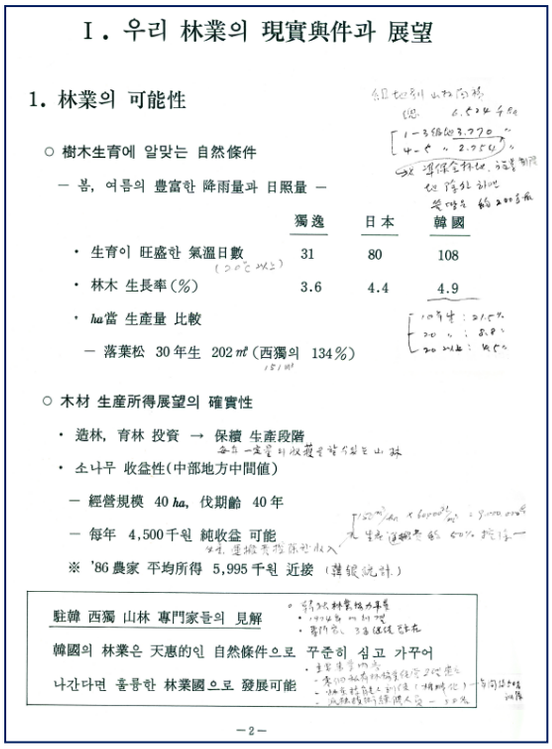


▲ 대관령특수조림지(1984년)

산지자원화 계획(1988)

• 주요내용

- 1,2차 계획기간 동안 녹화를 이루었으므로 1988년부터 시작된 3차 계획의 목표는 산림소득원 개발과 산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정하였다. 이시기에는 임산자원의 육성을 위한 산촌종합개발 사업 추진,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 및 문화시설의 확충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Ⅰ. 우리 林業의 現實與件과 展望

1. 林業의 可能性

○ 樹木生育에 알맞는 自然條件

— 봄, 여름의 豊富한 降雨量과 日照量 —

	獨逸	日本	韓國
· 生育이 旺盛한 氣溫日數	31	80	108
· 林木 生長率(%)	3.6	4.4	4.9

· ha當 生産量 比較

— 落葉松 30年生 202㎥ (西獨의 134%)

○ 木材 生産所得展望의 確實性

· 造林, 育林 投資 → 保續 生産段階

· 소나무 收益性(中部地方中間値)

— 經營規模 40 ha, 伐期齡 40年

— 每年 4,500千원 純收益 可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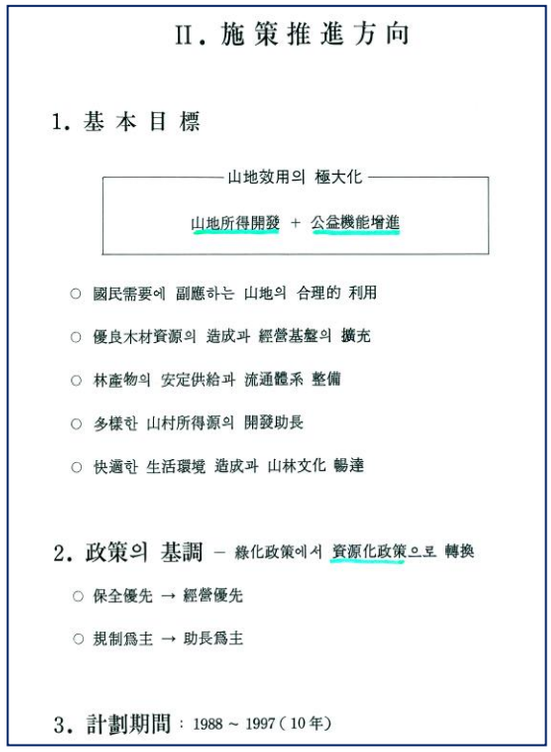
※ '86 農家 平均所得 5,995千원 近接 (韓銀統計)

駐韓 西獨 山林 專門家들의 見解

韓國의 林業은 天惠的인 自然條件으로 꾸준히 심고 가꾸어

나간다면 훌륭한 林業國으로 發展可能

—2—



Ⅱ. 施策推進方向

1. 基本目標

山地效用의 極大化

山地所得開發 + 公益機能增進

○ 國民需要에 副應하는 山地의 合理的 利用

○ 優良木材資源의 造成과 經營基盤의 擴充

○ 林産物의 安定供給과 流通體系 整備

○ 多樣한 山村所得源의 開發助長

○ 快適한 生活環境 造成과 山林文化 暢達

2. 政策의 基調 — 綠化政策에서 資源化政策으로 轉換

○ 保全優先 → 經營優先

○ 規制爲主 → 助長爲主

3. 計劃期間 : 1988 ~ 1997 (10年)

▲ 산지자원화 계획 중



◀ 산지자원화 계획 발표회(198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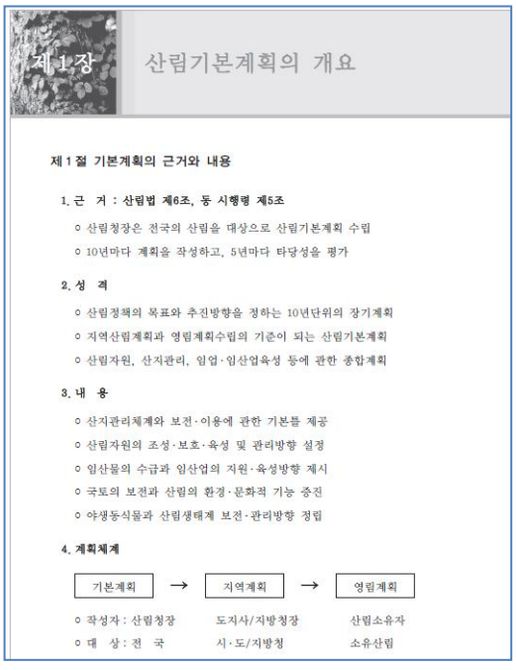
청옥산휴양림 개장(1991년)▶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

• 주요내용

- 제4차 산림기본계획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산림사업을 육성하며 쾌적한 산림환경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시기의 성과로는 기능별 관리체게 구축, 친환경적인 산지 개발 , 산림의 경제적 기능을 높이고 생태계 보존관리 체계 구축, 산림문화 휴양 기반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제 1 장 산림기본계획의 개요

제 1 절 기본계획의 근거와 내용

1. 근 거 : 산림법 제6조, 동 시행령 제5조
- ○ 산림청장은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기본계획 수립
- ○ 10년마다 계획을 작성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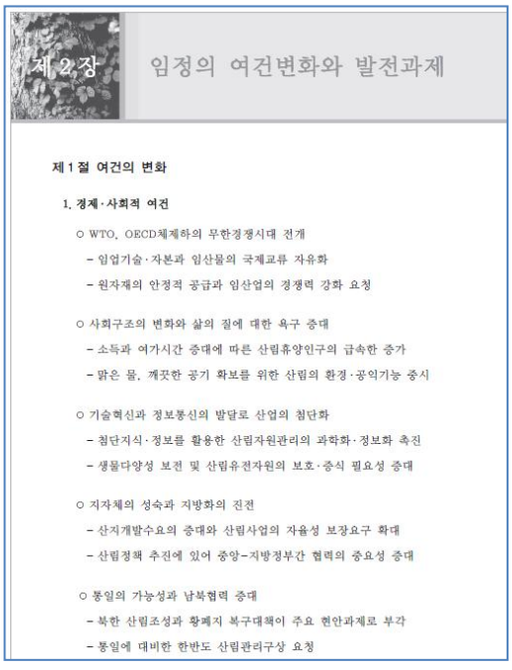
2. 성 격
- ○ 산림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는 10년단위의 장기계획
- ○ 지역산림계획과 영림계획수립의 기준이 되는 산림기본계획
- ○ 산림자원, 산지관리, 임업·임산업육성 등에 관한 종합계획

3. 내 용
- ○ 산지관리체계와 보전·이용에 관한 기본틀 제공
- ○ 산림자원의 조성·보호·육성 및 관리방향 설정
- ○ 임산물의 수급과 임산업의 지원·육성방향 제시
- ○ 국토의 보전과 산림의 환경·문화적 기능 증진
- ○ 야생동식물과 산림생태계 보전·관리방향 정립

4. 계획체계

기본계획 → 지역계획 → 영림계획

- ○ 작성자 : 산림청장 / 도지사/지방청장 / 산림소유자
- ○ 대 상 : 전 국 / 시·도/지방청 / 소유산림



제 2 장 임정의 여건변화와 발전과제

제 1 절 여건의 변화

1. 경제·사회적 여건

○ WTO, OECD체제하의 무한경쟁시대 전개
- 임업기술·자본과 임산물의 국제교류 자유화
-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과 임산업의 경쟁력 강화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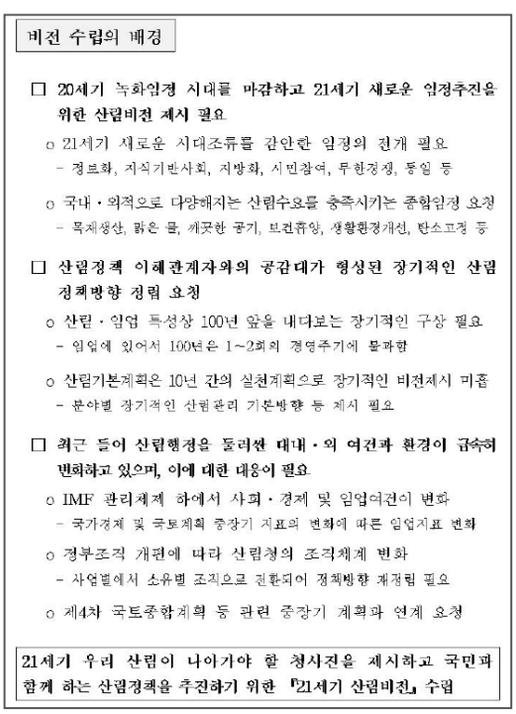
○ 사회구조의 변화와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
- 소득과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산림휴양인구의 급속한 증가
- 맑은 물, 깨끗한 공기 확보를 위한 산림의 환경·공익기능 중시

○ 기술혁신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산업의 첨단화
- 첨단지식·정보를 활용한 산림자원관리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호·증식 필요성 증대

○ 지자체의 성숙과 지방화의 진전
- 산지개발수요의 증대와 산림사업의 자율성 보장요구 확대
- 산림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의 중요성 증대

○ 통일의 가능성과 남북협력 증대
- 북한 산림조성과 황폐지 복구대책이 주요 현안과제로 부각
- 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산림관리구상 요청

▲ 4차 산림기본계획 중



비전 수립의 배경

□ 20세기 녹화임정 시대를 마감하고 21세기 새로운 임정추진을 위한 산림비전 제시 필요

○ 21세기 새로운 시대조류를 감안한 임정의 전개 필요
- 정보화, 지식기반사회, 지방화, 시민참여, 투한경쟁, 통일 등

○ 국내·외적으로 다양해지는 산림수요를 충족시키는 종합임정 요청
- 목재생산,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브권휴양, 생활환경개선, 탄소고정 등

□ 산림정책 이해관계자와의 공감대가 형성된 장기적인 산림정책방향 정립 요청

○ 산림·임업 특성상 10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구상 필요
- 임업에 있어서 100년은 1~2회의 경영주기에 불과함

○ 산림기본계획은 10년 간의 실천계획으로 장기적인 비전제시 미흡
- 분야별 장기적인 산림관리 기본방향 등 제시 필요

□ 최근 들어 산림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과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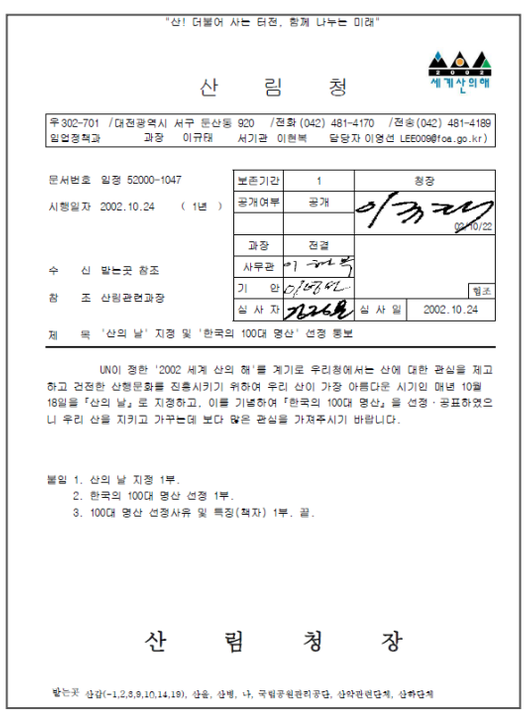
○ IMF 관리체제 하에서 사회·경제 및 임업여건의 변화
- 국가경제 및 국토계획 중장기 지표의 변화에 따른 임업지표 변화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림청의 조직체계 변화
- 사업별에서 소유별 조직으로 전환되어 정책방향 재정립 필요

○ 제4차 국토종합계획 등 관련 중장기 계획과 연계 요청

21세기 우리 산림이 나아가야 할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산림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1세기 산림비전』 수립

▲ '21세기 산림비전' 문서(2000년)



"산! 더불어 사는 터전, 함께 나누는 미래"

산 림 청

세계산의해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전화 (042) 481-4170 /전송(042) 481-4189
임업정책과 과장 이규태 서기관 이현복 담당자 이영선 LEE009@foa.go.kr

문서번호 임정 52000-1047
시행일자 2002.10.24 (1년)

보존기간	1	청장
공개여부	공개	
		02/10/22
과장	전결	
사무관		
기 안		협조
심 사 자		심 사 일 2002.10.24

수 신 받는곳 참조
참 조 산림관련과장
제 목 '산의 날' 지정 및 '한국의 100대 명산' 선정 통보

UN이 정한 '2002 세계 산의 해'를 계기로 우리정에서는 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산행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우리 산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 매년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여 「한국의 100대 명산」을 선정·공표하였으니 우리 산을 지키고 가꾸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의 날 지정 1부.
2. 한국의 100대 명산 선정 1부.
3. 100대 명산 선정사유 및 특징(책자) 1부. 끝.

산 림 청 장

받는곳 산감(-1,2,3,9,10,14,19), 산음, 산병, 나, 국립공원관리공단, 산악관련단체, 산하단체

▲ '산의 날' 지정 및 '한국의 100대 명산' 선정 통보 공문(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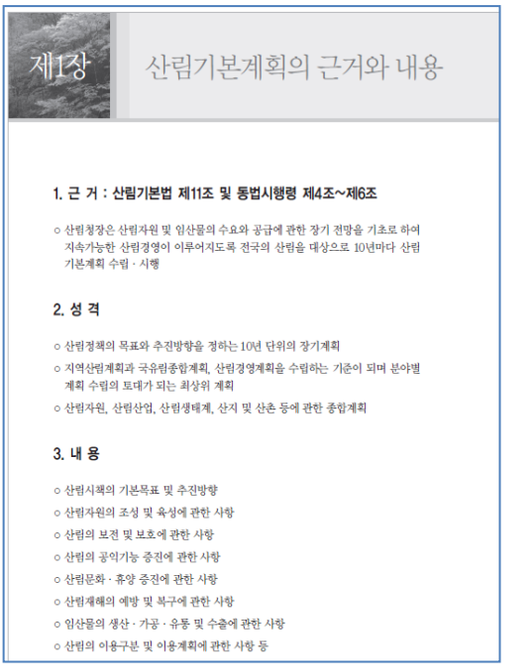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

• 주요내용

-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 제5차 산림기본계획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선진국가의 과제인 복지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가치 있는 국가자원, 건강한 국토환경, 쾌적한 녹색공간을 목표로 하였다.

계획 전반기 마무리와 국내외 여건 변화, 새 정부의 국정이념에 부합되는 새로운 산림정책의 개발 요구 등을 반영하기 위해 2013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산림일자리, 복지, 안전 정책 등의 업무를 강조하였다.

이 시기의 주요 성과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 기반 마련, 목재산업 육성제도 마련, 일상 속의 산림복지 서비스 분야 개척,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들 수 있다.


제1장 산림기본계획의 근거와 내용

1. 근 거 : 산림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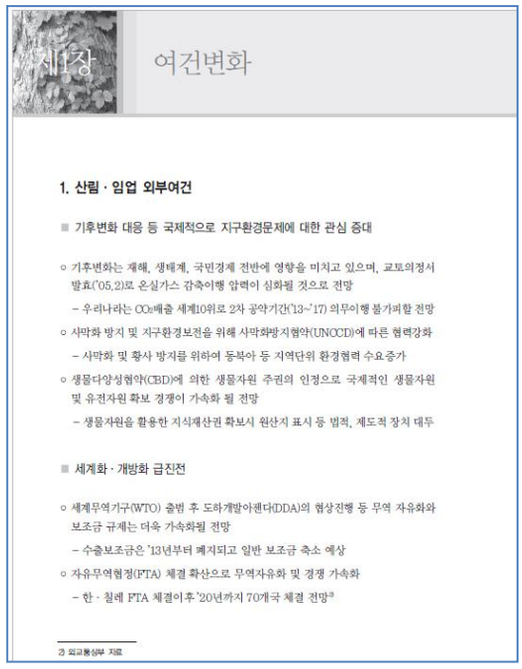
○ 산림청장은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 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10년마다 산림기본계획 수립 · 시행

2. 성 격

○ 산림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는 10년 단위의 장기계획
○ 지역산림계획과 국유림종합계획,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며 분야별 계획 수립의 토대가 되는 최상위 계획
○ 산림자원, 산림산업, 산림생태계, 산지 및 산촌 등에 관한 종합계획

3. 내 용

○ 산림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 산림문화 · 휴양 증진에 관한 사항
○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 임산물의 생산 · 가공 · 유통 및 수출에 관한 사항
○ 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등


제1장 여건변화

1. 산림 · 임업 외부여건

■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적으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

○ 기후변화는 재해, 생태계,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토의정서 발효('05.2)로 온실가스 감축이행 압력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는 CO_2배출 세계10위로 2차 공약기간('13~'17) 의무이행 불가피할 전망
○ 사막화 방지 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사막화방지협약(UNCCD)에 따른 협력강화
– 사막화 및 황사 방지를 위하여 동북아 등 지역단위 환경협력 수요증가
○ 생물다양성협약(CBD)에 의한 생물자원 주권의 인정으로 국제적인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 확보 경쟁이 가속화 될 전망
– 생물자원을 활용한 지식재산권 확보시 원산지 표시 등 법적, 제도적 장치 대두

■ 세계화 · 개방화 급진전

○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후 도하개발아젠다(DDA)의 협상진행 등 무역 자유화와 보조금 규제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
– 수출보조금은 '13년부터 폐지되고 일반 보조금 축소 예상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산으로 무역자유화 및 경쟁 가속화
– 한 · 칠레 FTA 체결이후 '20년까지 70개국 체결 전망[2]

2 외교통상부 자료

▲ 제5차 산림기본계획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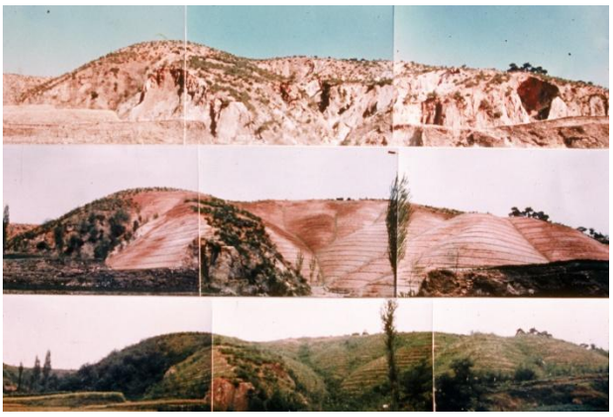


▲ 산림청에서 운영중인 숲유치원(2013년)



▲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 조성지 점검(2014년)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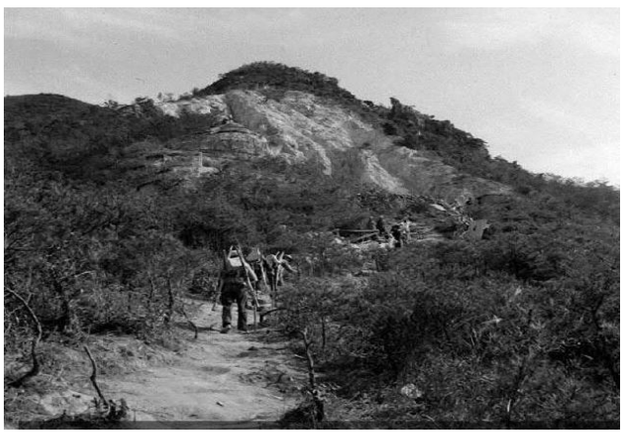




▲ 영일만 사방사업(1973년~1977년)



▲ 사방지 시비작업(1974년)



▲ 경주 시범사방공사장(1972년)



▲ 제1회 충청남도 산주대회(1973년)



▲ 치산녹화전진대회 및 제6회 산주대회(197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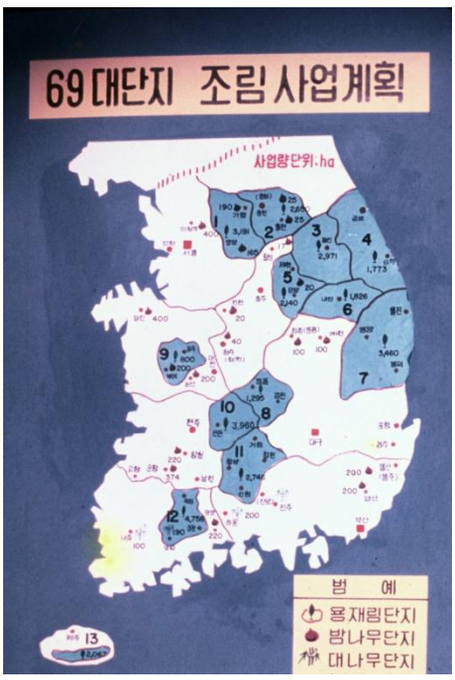
▲ 화전민 이주 모습(연도, 장소 미상)



▲ 화전민 자녀 취학(1974년)



▲ 이주 후 취업한 화전민(1974년)



◀ 대단지 조림사업계획(1969년)



▲ 산림보호를 위한 입산금지 안내판(1973년)

2. 산림자원조성 기록

전국민 나무심기

식목일

광복 후 첫 식목일 행사는 1946년 서울시 주관으로 개최한 것이 1회 행사였으며, 정부는 매년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하고(1948. 3. 31.), 1949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대통령령)을 제정하여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그 뒤 1960년에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폐지하고, 3월 15일을 '사방(砂防)의 날'로 대체 지정하였으나, 1961년에 식목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어 공휴일로 부활되었다. 1982년에 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다시 공휴일에서 폐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식목일에는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기념행사와 식수가 이루어지며, 이날을 전후로 전국에서 나무심기 행사가 진행된다.



南朝鮮過渡政府

法律第一〇號

植木日

一九四八年三月三十一日

右 認證함

朝鮮臨時政府 執政長官

美國陸軍少將 하불유·에쓰·켄

▲식목일 지정 법률(1948년)



▲산림청 직원들의 식목행사 모습(1968년)



▲조림지 급수(197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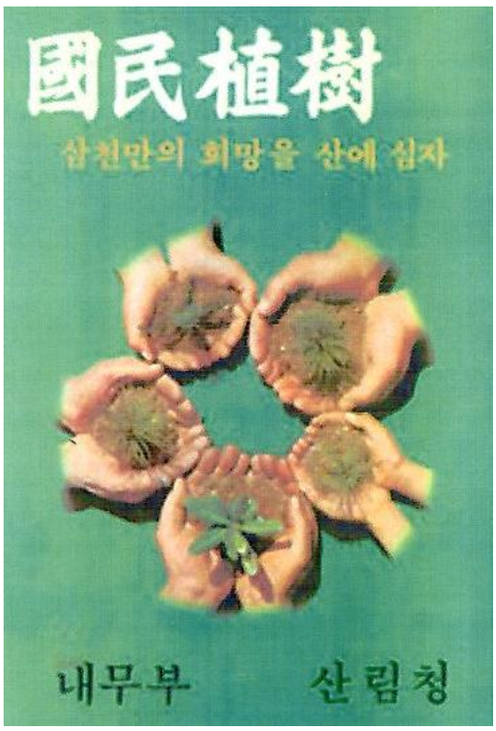
▲ 식목행사장 모습(1971년)

국민식수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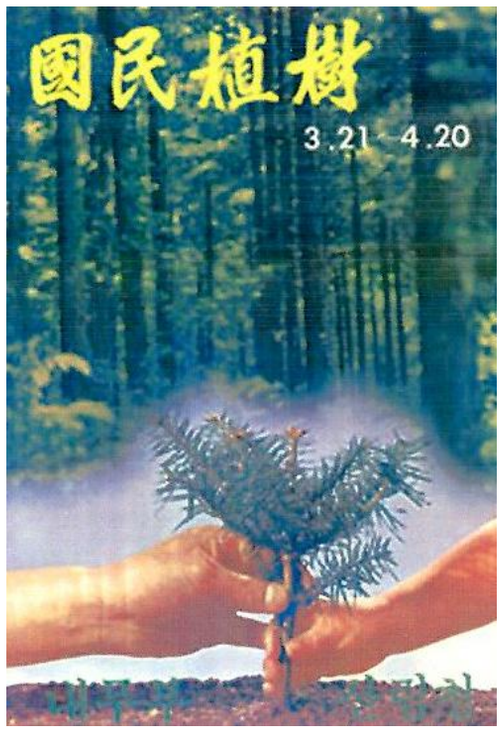
정부에서는 내년 4월 5일 실시하여 1973년까지 계속되던 식목일 기념식 행사를 중지하고 1974년부터는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15일간을 국민식수기간으로 정하여 온 국민의 식수참여를 독려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국민식수 기간 동안 대형 홍보아치와 탑을 세우고, 플랜카드, 포스터, 홍보전단 등과 '국민식수 참여하여 복지국가 건설하자', '나무 사랑 나라 사랑', '삼천만의 희망을 산에 심자', '내일의 번영을 산에서 찾자' 등의 표어를 사용하여 참여를 독려하였다.
1975년부터는 이 기간을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로 확대하였고, 중앙행정기관, 기업체, 학교 등이 참여하는 국민식수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운동의 결과로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의 목표 달성이 4년 앞당겨져 1979년에 완료하였다.



▲ 국민식수기간 기념 우표(1975년)



▲ 국민식수기간 포스터(197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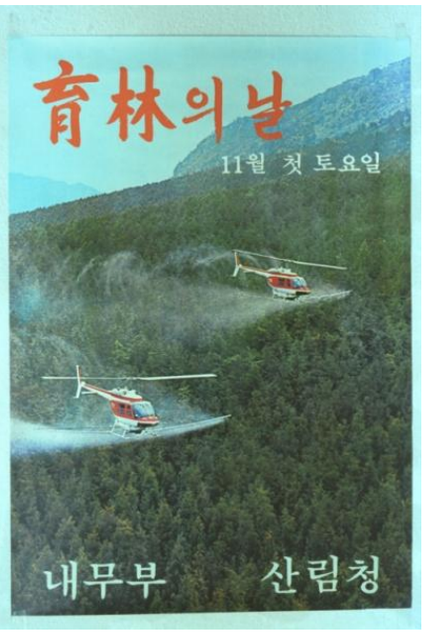
▲ 국민식수기간 포스터(1978년)

숲가꾸기

조림에 이어 숲을 가꾸는 육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1977년에는 '육림의 날'을 제정하였다.
육림의 날은 매년 11월 첫 번째 토요일을 지정하였는데 이날은 학생, 직장인 군인 등 전국민이 참여하여 가지치기, 간벌, 병해충구제 등의 작업을 실시했다. 나무는 성장과정에 따라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의 단계적인 숲가꾸기 작업을 해주어야 목재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아진다. 육림의 날은 기념일 정비로 폐지되었으나 11월 중 숲가꾸기 기간으로 정하여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제1회 육림의 날 홍보물(1977년)



▲ 육림의 날 포스터(1978년)



▲ 육림의 날 행사 모습(1991년)



▲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단 입교식 모습(1998년)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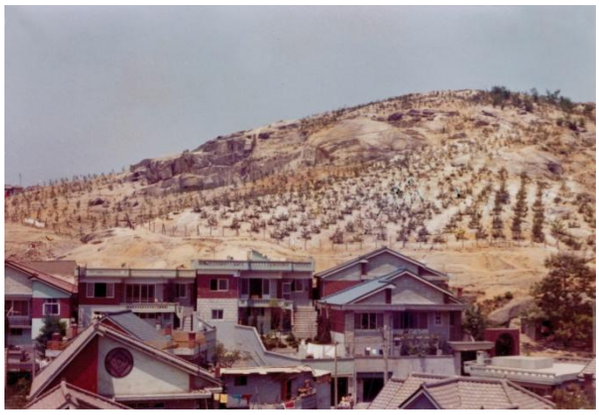
▲ 전국검목관 교육(197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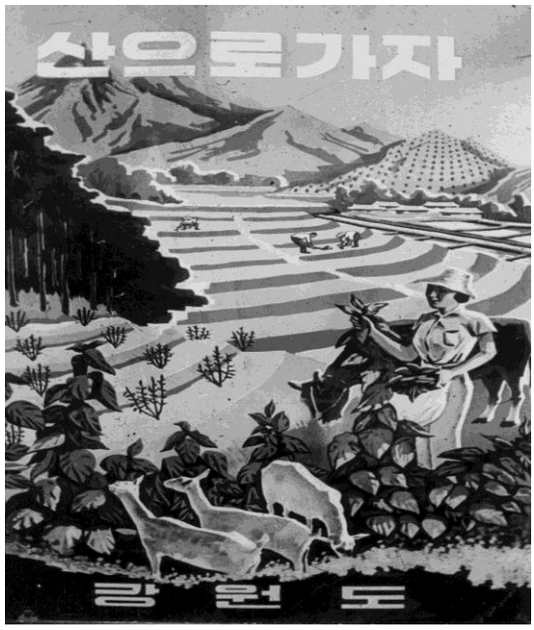
▲ 잡목 솎아베기(1973년)



▲ 국민식수 학생작품 공모전 시상식(1976년)



▲ 도시녹화 현장_서울시 하월곡동(1977년)



▲ 식목일 포스터(196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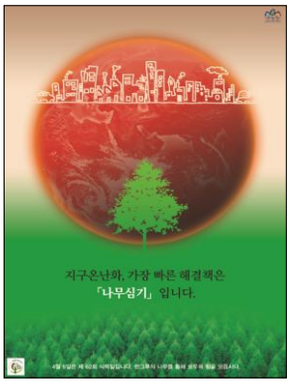


▲ 식목일 포스터(197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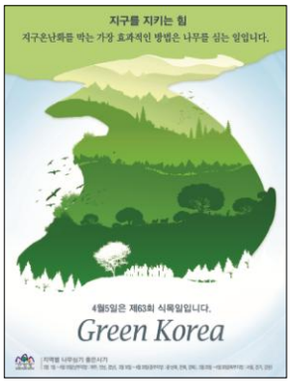
▼ 식목일 포스터 변천(2006~2017)



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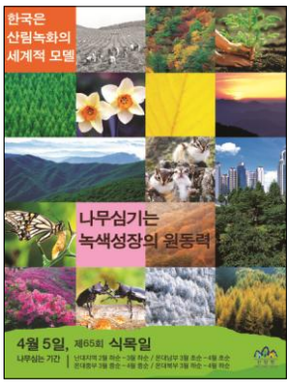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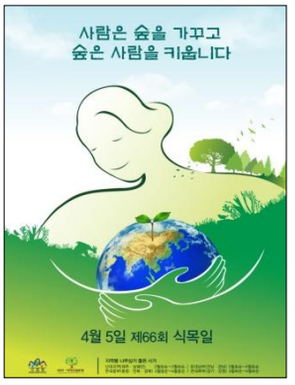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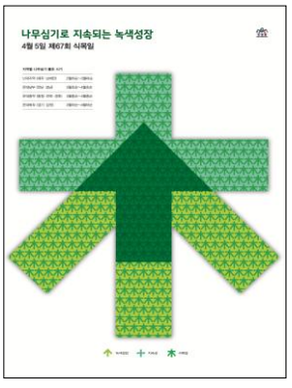
2009년



2010년



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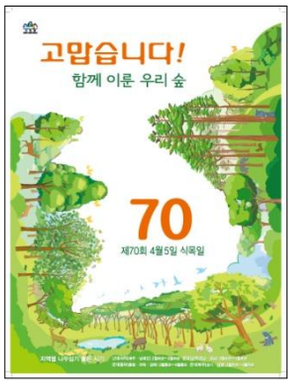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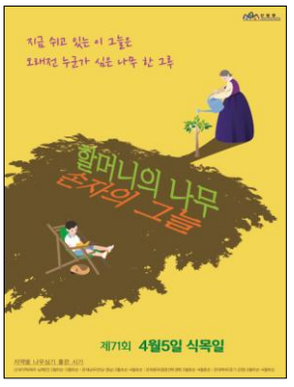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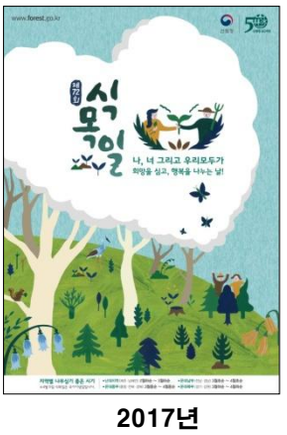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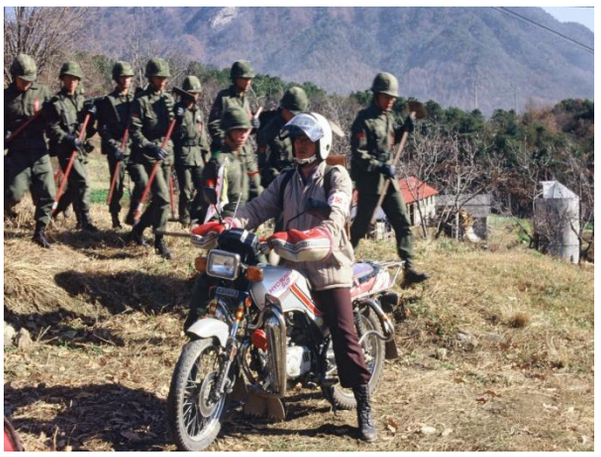
3. 산림보호 기록

산불방지

산불은 산림을 훼손하는 가장 큰 재해로 산불방지 업무는 신림청의 주업무 중 하나였다. 1968년 '산불경방요령', 1971년 '산림보호 단속요강'이 시행되었고, 1970년대 들어서 순찰원 배치, 진화용 헬기를 도입하였다.
1996년 강원도 고성에서 정부수립 이후 최대 산불이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에 양양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산림과 가옥 뿐 아니라 문화재 피해도 커서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 산불조심 캠페인(연도 미상)



▲ 산불진화훈련(1986년)



▲ 산불순찰 헬기(1976년)



▲ 가두 산불계몽 행사(1975년)



▲ 고성산불 피해지(1997년)



▲ 산불훈련(2011년)

산림보호활동

산림보호 활동에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활동, 산림훼손예방, 산사태방지 등의 업무가 있다. 정부는 산림의 황폐화, 산불방지, 불법 개간 금지, 야생조수 보호를 위해 보호직원의 배치 뿐 아니라 산림의 출입을 제한하는 정책 등을 실시하여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는 데 있어 단기간에 큰 성과를 이루었다.

산림에 큰 피해를 주는 병해충은 1960년대 솔나방(송충), 1970년대에는 솔잎혹파리였다. 이후 1988년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여 2000년대 이후 주력 방제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대표적 산림보호 업무인 사방사업은 황폐지 복구, 토석유출, 산지 붕괴를 막기 위해 사방조림, 사방댐을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산림복구와 재해방지에 기여하였다.



▲ 산림병해충박멸 행사(1973년)



▲ 산림병해충 지상 방제(1978년)



▲ 항공방제(2012년)



▲ 솔나방 성충인력구제(연도 미상)



▲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1987년)



▲ 산림보호기동단속반(1976년)

사진자료



▲ 기마순찰대의 활동 모습(1980년대)



▲ 꿩 방사 행사(1996년)



▲ 소나무재선충병 방재 현장(2002년)



▲ 고성산불(2000년)



▲ 마을주민 산불진화 훈련(1981년)



▲ 태풍 '루사'로 인한 산사태 현장(2002년)

4. 국제산림협력 기록

해외산림개발

산림청 개청 이전인 1964년으로 신흥양행이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 최초의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이다. 이후 인도네시아, 솔로몬,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러시아, 오세아니아로 확대되었다. 산림청은 국내 목재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1993년부터 산림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전문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은 현재까지도 조림, 육림, 가공품 생산 등에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 ㈜포스코 해외조림 기술 컨설팅 (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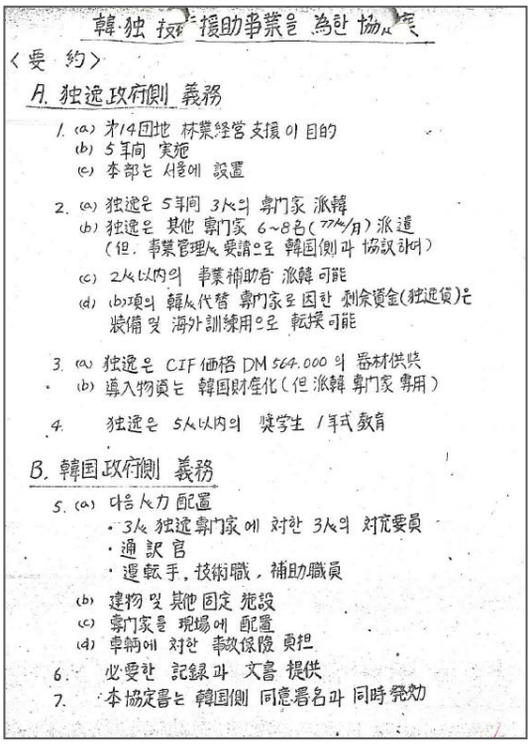
▲ 캄보디아 해외조림 투자설명회 (2008년)

국제협력

해방 후 우리나라는 해외원조에 의해 산림실태조사와 산림토양조사사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이루어진 대표적인 산림분야 협력사업은 한·독산림기술협력(1974~1993)으로 1, 2차에 걸쳐 독일의 산림기술과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사유림경영 개선에 기여하였다.

이후 1980년대부터는 한·인도네시아 산림협력 체결(1987년) 이후 아시아 각국과 오세아니아, 유럽, 중남미 등 31개국과 양자협력을 맺고 산림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성공적인 산림녹화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각국의 조림사업을 지원해왔다. 특히 중국, 몽골 등 동북아시아의 사막화방지를 위한 공동연구, 조림사업, 기후변화에 따라 진행된 열대림 훼손지의 숲 복원사업과 생태환경 개선 사업 등을 정부와 비정부기구를 통해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다.



韓·独 技術援助事業을 為한 協定

〈要 約〉

A. 独逸政府側 義務

1. (a) 第14団地 林業経営 支援 이 目的
   (b) 5年間 実施
   (c) 本部는 서울에 設置

2. (a) 独逸은 5年間 3人의 専門家 派韓
   (b) 独逸은 其他 専門家 6~8名(77人/月) 派遣
   (但. 事業管理人 要請으로 韓国側과 協議하여)
   (c) 2人以内의 事業補助者 派韓 可能
   (d) (b)項의 韓人代替 専門家로 因한 剰余資金(独逸貨)는 装備 및 海外訓練用으로 転換可能

3. (a) 独逸은 CIF 価格 DM 564.000 의 器材供与
   (b) 導入物資는 韓国財産化(但 派韓 専門家 専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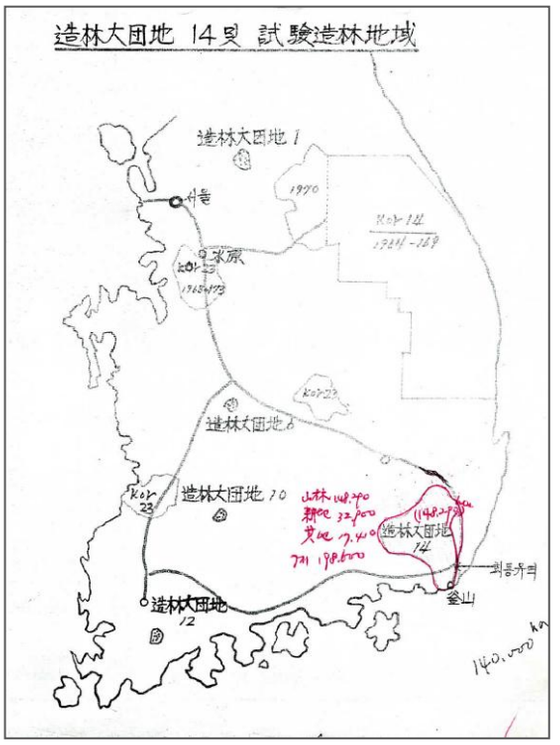
4. 独逸은 5人以内의 奨学生 1年式 教育

B. 韓国政府側 義務

5. (a) 다음人力 配置
   · 3人 独逸専門家에 対한 3人의 対応要員
   · 通 訳 官
   · 運転手, 技術職, 補助職員
   (b) 建物 및 其他 固定 施設
   (c) 専門家를 現場에 配置
   (d) 車輛에 対한 事故保険 負担

6. 必要한 記録과 文書 提供

7. 本協定書는 韓国側 同意署名과 同時発効



▲ 한·독임업협력사업 관련 문서(1974년)



▲ 제14차 한-인니 임업위원회(1999년)



▲ 제1차 한-미얀마 임업협력위원회(2000년)



제1장 사막화방지 변화의 움직임

제1절 | 몽골의 개황

1. 일반개황

1) 자연조건

(1) 위치 및 지형

몽골은 아시아 중북부에 위치한 내륙국가로서 면적이 약 1,564천㎢로 한반도의 7배이고,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고도 약 1,500m의 고원지대이며, 남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다. 몽골은 전체적으로 서고동저의 지형으로서 서부는 해발고도가 4,374m에 이르며 정상부에는 만년설을 가지는 후이텐(Khuiten) 산이 있다[1].

그림 1-1. 몽골의 지세도(출처 gis.wwf.mn)

몽골은 생태·지형적으로 사막, 사막 스텝, 스텝, 산림스텝, 북부산림, 고산지대로 구분할 수 있다. 남부와 서남부 지역의 사막지대는 사하라사막 다음으로 넓게 펼쳐진 사막성 지대로 영토의 약 19.1%에 해당하며, 33개의 작은 사막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고온, 건조한 대기, 강한 바람에 의해 식생이 거의 없으며, 연강수량은 100㎜이하이다.

1) 몽골 국가통계청(www.1212.mn)



▲ 몽골 룬솜에서 나무심는 학생들(2011년)

◀ 한.몽 그린벨트 조림사업(2007~2016) 백서(2015년)

국제행사

산림청은 해방 후 산림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2000년대 들어 각종 주요 국제행사를 유치하였다. 2010년에는 세계산림대회와 함께 산림분야의 양대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산림연구기관연합(IUFRO) 23차 총회(서울 개최), 2011년에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10차 당사국총회(창원 개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강원도 평창에서 제6회 세계산불총회를 개최하였고, 2021년에 열리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유치(서울 개최 예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 UNCCD(유엔사막화방지협약) 10차 총회 개최(2011년)



▲ UNCCD(유엔사막화방지협약) COP10 제3차 의장단회의 개최(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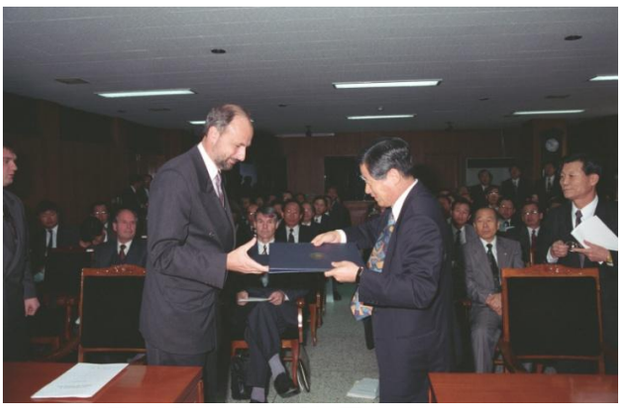


▲ 제6회 세계산불총회 전체회의 (2015년)



▲ 세계산림총회 개최 제안발표 (2016년)

사진자료



▲ 한독임업협력사업 종료식(1993년)



▲ 한·몽그린벨트 사업지 선정 협의(2006년)



▲ IUFRO세계총회 기념식수(2010년)



▲ 몽골 룬솜 양묘장(2011년)



▲ UN사막화방지협약(UNCCD)고위급 회의(2012년)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국 개소식 (2013년)